"행복도 배워야 한다"

'보현행원품' 강의서 펴낸 법련사 보경 스님

보현보살이 세운 10가지 발원을 적은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에 속해 있다. '품(品)'이라는 뜻이 말해주듯 단독으로 분리돼 수지독송 되기도 한다. '보현행원품'이 적고 있는 보현보살의 원은 중생을 이롭게 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며, 궁극에는 불법의 완성에 이르는 장대한 여정이다.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은 최근 '보현행원품'을 강의한 〈원하고 행하니 이루어지더라〉를 펴냈다.

저자는 소문난 '글쟁이'이다. 송광사가 자리한 조계산의 대나무·편백나무들처럼 저자의 문장 사이사이 가려 쓰인 단어들의 수려함은 일품이다.

책은 저자가 설법교안지인 〈법화와 설법〉에 연재했던 글들을 추려 내놓은 것들이다. 저자는 불광사 광덕 스님의 번역본을 인용해 한 줄 한 줄 저자만의 명쾌한 해설을 달았다.

저자는 책 서문에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인디언 오하마족 격언을 소개한다.

요즘 사회 문제화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과 폭행 등을 보며 사회공동체의 역할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었다.



원하고 행하니 이루어지더라
보경 스님
불교시대사
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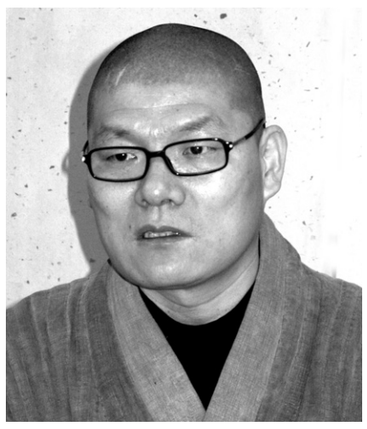
저자는 "불교에서는 '개인'이라는 개념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대신 대중과 공동체, 다수가 살아가는 도량을 함께 가꿔나가는 정신을 더 소중히 생각한다"고 말한다. "깨달음은 개인의 능력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를 때, '벗'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저자는 이를 좋은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한다.

저자는 "보현보살이 세운 10가지 원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현행자'라고 부른다. 이웃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함께 실현해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행복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진나라 평공(재위 558~532) 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평공이 신하들을 물리치고 난 후 홀로 오후의 한가한 시간을 보내면서 문득 거울을 비춰 보았는데, 귀밑에 흰서리가 가득 내려있었다.

그것을 본 평공은 새삼스럽기도 하고 산다는 것이 부질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 멀리 앞을 보지 못하는 악사 사광(師曠)이 앉아 있었다.

평공이 사광에게 다가가 넋두리를 했다.

"내 나이 일흔이니 공부를 하려 해도 이미 저문 듯하구나."

서광이 말했다.

"왜 촛불을 켜지 않으십니까?"

난데없는 사광의 말에 평공은 불쾌했다.

"신하인 주제에 감히 임금을 놀리려는 것이냐?"

사광이 대답했다.

"저 같은 맹인이 감히 임금님을 놀릴 리 있겠습니까? 신이 듣기론 그렇습니다."

사광의 말이 계속됐다.

"'어려서 공부를 좋아하는 것은 막 떠오르는 해와 같고, 장년에 공부를 좋아하는 것은 중천에 뜬 해와 같고, 노년에 공부를 좋아하는 것은 저녁에 촛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가는 것이 어찌 캄캄한 길을 가는 것과 같겠습니까?"

평공은 깜짝 놀랐다.

"그렇구나!"

저자는 말한다.

"부처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무량겁을 지나도록 설법할지라도 다함이 없다. 우리가 그런 불보살의 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한국불교 애정어린 비판 장군죽비

연세대 신규탁 교수가 바라본 한국 근현대 불교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작금의 한국불교를 못마땅해 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신 교수는 한국불교 현실에 대해 애정 어린 비판을 아끼지 않는 학자로 불교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신규탁 교수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화엄사상과 선불교를 전공했다. 그런 그가 한국불교에 주목한 까닭은 한국불교를 누구보다도 아끼기 때문이다.

한국 근현대 역사의 격동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파란만장했다. 불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불교 문헌연구자인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이런 격동을 통찰하면서, 불교의 전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저서 〈한국 근현대 불교사상 탐구〉에 담았다.

저자는 책에서 왜곡되고 편협해진 오늘날의 불교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 100년간의 전통을 밝혀내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의 불교 현실을 에둘러 비판하고 있다.

올 4월 11일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종단 등록을 한 지 50주년 기념일이다. 불교의 역사는 길지만, 교단으로 조직된 것은 그다지 길지 않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의 허가에 의한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사 태고사법'이 공포된 것도 고작 1941년 5월 1일의 일이었다. 길게 잡아야 70년의 역사이다.

저자는 현재 한국불교의 모순을 고발하기 위해 현재의 역사와 근접한 근현대 시기에 주목했다. 저자의 한국불교를 향한 장군 죽비는 학자적인 소양과 더불어 평소 염불, 간경, 참선을 게을리 하지 않는 수행력에 힘 입은 바 크다.



한국 근현대 불교사상 탐구
신규탁 저
새문사
2만7000원

왜곡·편협된 한국불교 바로 잡으려
100년 전 불교 모습 파헤쳐
조계종 출범 50주년 필독할 만

저자가 〈경국대전〉을 비롯한 각종 불교 관계 법령을 섭렵해, 불교 밖에서 불교 내부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인다.

특히, 현재 조계종서 시행 중인 '예불문'이 잘못됐다고 논증하는 저자의 배짱은 가히 신념이라 할 만하다. 깎을 것은 깎아 내리고, 추킬 것은 추켜 올리는 논지의 전개 또한 투명하다. 저자는 "현재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책은 저자의 이 같은 지적의 연유를 담고 있다.

책은 한국 근현대 지성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한 번쯤 들어 볼 만하다. '조계종' 등록 50주년인 올해 저자의 장군죽비의 외침이 더 크게 들린다.

조동섭 기자

붓다의 가르침은 생활 필수품



안양규 박사, 행복메시지 한권에 모아

일간지를 펴보면 온통 불행의 연속이다. 살인 전쟁 갈등 폭력 사기 비방 등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 신문에 우리네 삶이 그대로 투영된다고 볼 때, 현대인의 삶은 온통 문제 투성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삶이 고통스러울 수록 붓다의 메시지는 감로수처럼 와닿는다. 누구보다 투철하게 고(苦)를 고심했던 붓다이기에.

〈행복을 가져오는 붓다의 말씀〉은 행복을 백사장에서 바늘찾기 보다도 어렵게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단박에 행복을 전하는 책이다.

저자 안양규 박사(英 옥스퍼드대)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붓다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확신에 기초해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말한다.

2600여 년전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푼 붓다.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한 사람은 붓다처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말한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도 붓다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붓다의 가르침은 단지 박물관에 진열된 유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적용해야 할 생활의 필수품이라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저자는 "가끔 시간을 내어 놀이 삼아 박물관을 찾아 유물 관람하는 방식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바른 인생을 사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저자의 견해와는 달리 붓다가 살았던 시대의 종교 정치 문화 등 사회 제반 현상이 현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붓다의 가르침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도 있을지 모른다.

저자는 이런 이들의 오해는 붓다의 가르침의 본질을 오해한데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붓다의 가르침은 인간 본질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인간의 본질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강조한다.

"인간의 고통과 그 원인을 깊이 다루는 붓다의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유효하고 유익하다"고.

저자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붓다의 가르침이 크게 소용없을 지 모른다. 그러나 고통의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에겐 붓다의 가르침이 가장 효과적인 약이다"라고 말한다.

책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뉘어있다. ▷붓다의 인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붓다에 관한 경전 ▷붓다의 가르침을 베우기 위한 마음자세에 관한 내용 ▷행복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 ▷붓다의 전생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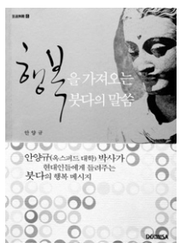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맑아지고 세상사가 분명해 진다. 나 자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주위 사람도 그만큼 더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 "이해하는 만큼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자란다"고 말한다.

특히 "붓다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자신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하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각각의 경전은 독립돼 있지만 그 자체가 완결된 법문이라고 본다. 때문에 저자는 경전을 읽는 데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다고 말한다.

"경전은 장편소설이 아니므로 자신이 원하는 경전을 먼저 읽어도 무방합니다. 단지 소설 읽듯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흥미 위주로 속독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붓다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 자신의 허물을 보고 고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행복해 집니다."

조동섭 기자



행복을 가져오는 붓다의 말씀
안양규 지음
도피안사 펴냄
1만4000원

무병장수와 극락왕생 기원

윤달 맞아 행해지는 생전예수재 해설

윤3월이 든 올해는 사찰마다 생전예수재가 한창이다.

생전예수재는 말 그대로 생전에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아두는 재이다. 살아 있는 지금의 내가 '나'를 위해 지내는 재이다. 이 재는 단순히 현생의 번뇌와 고통을 없애고, 내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에서 벗어나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첫째가 내상을 대비해 선한 공덕을 쌓는 것이요, 둘째가 참회이다.

〈생전예수재〉는 생전예수재의 올바른 기원, 예수재 의식의 의미, 재단 구성 등 생전예수재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책에는 일상발원 기도문과 극락왕생 발원문도 수록됐다.



생전예수재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엮음
조계종 출판사
4000원

특히, 지장기도 일지는 예수재 기간 동안 지참하면서 실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책은 무상에 대한 깊은 인식과 교만과 죄업에 대한 뼈저린 참회야말로 예수재의 참된 의미이다라고 말한다.

조동섭 기자

범음범패학인모집

▣ 기초의식 :
1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6시까지
2 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까지
내용 : 목탁불공 및 종성(도량석) 각단청 예불

▣ 중 급 반 :
초의식 교육이수한 자
내용 : 태징,북 다루기,49재 및 각종재,천수바라 다라니,관욕화의재,요잡바라

▣ 고 급 반 :
시련, 괘불이운,종사이운,예수재 등 큰행사에 필요한 향화게,도량게,다게,법고 작법.

▣ 호적 및 관악기 이수반 :
개인교수식,악보화해서 쉽게 터득할 수 있게 지도함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합장
학장 범성 010-9243-0113

법화경독송 천 일 기 도

(2012. 3. 25 ~ 2014. 12. 19)

거룩하신 부처님께 지심으로 귀의하오며
고려사와 인연 있는 불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평안이 깃들고, 업장소멸 소원성취를 발원하며, 고려사 불사 원만 성취를 위해 부처님 최고의 대승경전인 묘법연화경(법화경)을 천일동안 일천번 독송하는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축원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00 ~ 03:00 법화경 전품 독송

▶1차 백일기도 (매회 회향일 마다 합동천도재 봉행)
■ 기 간 : 2012년 3월 25일 ~ 7월 2일
■ 내 용 : ①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 ② 법화경 사경 ③ 염불 ④ 108배 (위 4가지 중 한 가지 선택)
■ 동참금 : 10만원
■ 접 수 : 전화접수 가능
■ 문 의 : 032) 932-3525 / 070-4147-6525

※부처님 봉안불사 동참자, 개금불사 동참자(접수중)는 천일동안 축원하여 드림.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 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임제불교 조계종

종 정 적진당 지암
부종정 적공당 자은

원로원장 : 석진도 원로위원 : 지 언
총무원장 : 석법산 총무부원장 : 석제현
감사원장 : 석월산 조직원장 : 석동일
사회복지원장: 석무애 호법원장 : 석법철
문화부장 : 석지훈 사회부장 : 석보원

불기 2556년 3월 25일
임제불교 조계종 제2대 총무원장 취임식 및 보살계 수계법회 봉행

법계고시 : 대종사 2명 : 적공당 자은, 적심당 진도
종 사 9명 : 석법산, 석월산, 석지언, 석제현, 석동일, 석법철, 석무애, 석보원, 석지훈
종덕 2명, 대덕 5명, 중덕 3명
총 21명 참여, 보살계 150명

■ 총무원 : 경북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 171번지 심곡사 휴대폰 011-537-2311
■ 총본산 :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26번지 청암사 휴대폰 010-3807-8428